

# 마음에 새기는 '법화경'

### 우리말로 쉽게 쓴 '법화경' 사경 내용 이해하며 한자한자 10회씩 5권으로 분리, 휴대 간편

'사경(寫經)은 수행이 아니다.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는 서예다.' 과연 맞는 말일까?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단호하게 '틀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든 경전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자신이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려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일갈한다. 오히려 경전을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아예 대놓고 증시한다. 이른바 '수지독송(受持讀誦) 해설서(解說書寫)'다.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며, 남을 위해 설명해주고 경전을 베껴 쓰라고 수행자를 독려한다.

예 그렇까? 죽음을 길목에서 <법화경> 번역을 서원하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말 법화경 사경> 5권 1집을 발간한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책 서문에서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을 옮

겨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경은 참선·염불·절 등과 함께 불교수행법의 반열에 당당하게 오른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때문에 <법화경> 사경의 공덕과 영험을 경전 곳곳의 경구를 들며 강조한다.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이익 되게 하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준다.' <약왕보살본사품>, '경전을 수지해 읽고 외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은 무량하다.' <보현보살권발품> 등 <법화경> 사경의 중요성을 거듭 말하고 있다. 즉 <법화경>을 '내 것' '바로 여기' '지금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써내려간다면,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쓰고 읽는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어설수행(如說修行)'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의 구성은 하나의 방대한 사경지(寫經紙)와 같다. <법화경>의 한 자 한 획이 유려한 한글체로 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해, 우리말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원하는 불자들의 바램을 충분히 배려했다.

뿐만 아니다. 총 10회에 걸쳐 문장을 다듬고 다듬어 한문 번역에서 오는 문장의 어색함과 그에 따른 의미의 불분명함을 깔끔하게 거둬냈고, 5권의 낱말로 분리해 갖고 다니며 사경할 수 있도록 휴대성도 높였다.



우리말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운주사 | 3만8000원

혜조 스님은 "법화경 사경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베껴 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사경하는 것이기에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닌다"며 "하루 한 페이지라도 일정 분량씩 꾸준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가지런히 모아서 우중에 찬만한 진리 곧 법신을 형상화한다는 느낌으로 한 자 한 자 정성껏 사경하면, 어떤 소원이든 보다 쉽게 이뤄진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새로운 책

■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야 하**  
리(나무불 스님 지음, 민족사)=경북 상주 천상산 김장도량에서 자연과 하늘을 벗 삼아 수행하고 있는 나무불 스님이 두 번째 수상록을 세상에 내놨다.



책은 첩첩산중에서 밤이면 달과 별을 쳐다보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뜬내어 마음밭을 갈고 일구어 써 내려간 스님의 마음이 오토이 담겨있다. 자작시와 간단한 소감글 100여개를 엮은 책에서는 열심히 정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한평생 속세를 떠나 '마음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겨 있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곱씹어볼 수 있게 한 주옥같은 글들이 책 곳곳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 **명심보감(운창화 옮김, 동승)**=우리나라 사람이려면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심보감>. 동양의 고전이자 인생의 지침서로 뛰어난 철학적인 <명심보감>이 지난해부터 '불서읽기 운동'을 통해 문교부의 장을 열고 있는 운창화 민족사 대표에 의해 순 한글로 거듭났다.



'마음을 밝혀 주는 보배 거울'이란 책이름처럼, 윤대표는 <명심보감>이 훌륭한 명언집이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범절을 수록한 책을 곳곳에서 강조한다. 때문에 책은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감호수로 다가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또 기존의 번역과 원문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해설과 주석을 넣었음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구나 속담 등을 삼십여 개 삽입해 혼자 공부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 **만다라를 통한 내적치유(김영미 지음, 해외달달그리는사람들)**=108번뇌를 선(禪)으로 이어가는 그림, 만다라. 근원적인 자기탐구의 도구로써 만다라를 그려온 아동미술가 김영미씨가 심리치료를 위한 만다라의 밀그림을 한 데 묶어 화집으로 펴냈다.



지난 2004년부터 채색을 위한 밀그림으로 그린 만다라 280여 점을 선보인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제종과 연령대가 직접 채색을 할 수 있게 한 점. 무엇보다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 등 각 연령대별 만다라를 보여줘 채색을 통해 마음 정돈의 기회를 주고 있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조화로운심, 법정스님, 9800원
  - 간화선(조계종수행법규) 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교무원, 1만5000원
  - 붓다의 나라, 미얀마 운주사, 김형규, 1만원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총카파, 4만3000원
  - 그대 떠나 보거나 열린책들, 해안스님, 90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 눈 뜨고 귀 열면 일상이 행복

### 지수 스님이 불자들에게 보낸 편지 묶음

'행복은 스스로 누리는 자의 것. 눈 뜨고 귀 열면 주위에 널려 있다.'

대홍사 관음암에서 자연을 벗하며 수행한 지수 스님이 절집 향기를 오토이 담아 일반인들을 위한 '행복론'을 펴냈다. 지난 1995년 11월부터 스님이 관음암에 인들을 권 불자들에게 매달 써 보낸 편지들을 엮은 이 책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넘겨주게 쓰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책머리로 내건 말이 <마음 탓이다>. 낡은 것을 거둬내고 새로움을 깨끗하게 담아낼 '마음의 바리때'를 책장 곳곳에서 선사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책은 영원한 화두인 '마음'에서 소박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마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란 물음을 던지고, 해답은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체험을 풀어내는 언어도 고서어나 파문처럼 있을 법한 격언대신, 현실에서 오가는 정감 있는 말로 해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감정이 울긋불긋 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화내고 미움을 일으키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렇듯?'란 화두를 자신에게 들이대라고 주문한다. 이렇게 마음 탓을 자신에게 돌리면 악감정이 쌓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가, 어떤 상황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책에서는 모든 행복과 불행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늘 마음 탓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반성의 회초리'를 숨겨놓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무뭉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은 독자에게 현명한 '마음잡기' 방법론도 조목조목 일러준다.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마음자리를 밝히고 넉넉히 쓰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놓고 있다. 스님이 30년 가까이 선(禪) 수행으로 정지하게 일군 마음공부의 살림살이가 바로 그것.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것'을 강조한다. '내 감정의 물을 들이지 않고 내 편견의 왜곡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눈으로 보듯 느끼고 체험하는 것. 순수한 존재 그 자체의 상태가 선이다'고 말한다. 좋고 싫음의 사나운 파도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스님의 간절한 수행제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책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것도 가르친다. 우리의 스승을 고타마 싯타르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모두의 이름 밑에 '부처님'이란 칭호가 붙여지도록 저마다의 이름 석 자를 소중히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1978년 파계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통도사와 직지사에서 경전공부를 했다. 이후 송광사, 대홍사에서 경전과 참선을 지도했으며, 태국과 영국 등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참선을 가르쳤다. 특히 영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 수도원에서 살면서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교류를 갖기도 했다.

김철우 기자

■ **마음 탓이다**  
지수 지음  
시공사 | 9500원



## 운허 스님이 쓴 '화엄경' 현대어로 다시 태어나

"법계가 무한해 대방광(大方廣)이고, 공덕이 끝도 없어 불화엄(佛華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방삼세에 두루 비추고 결림 없으니 '대방광불화엄'이다. 경의 이름을 붙인 까닭이 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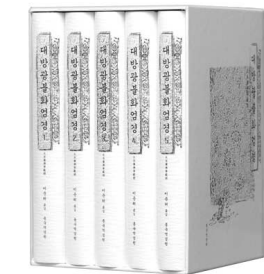
원효 스님이 <화엄경소> 서문에 쓴 말마따나 대승경전의 정수로 불리는 <화엄경>. 현대불교의 대강택 운허 스님이 1960년대 동국역경원에서 완역한 <화엄경>이 새 옷을 갈아입었다. 세로쓰기가 가로로, 어려운 고어체가 현대 언어에 맞게 <화엄경>의 내용 전체가 5권 1집으로 출간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표기법의 전환이다.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도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띄어쓰기 등도 현대 맞춤법 표기법에 맞게 고쳐 읽기가 한층 쉬워졌다. 특히 경의 이름도 기본 <화엄경>에서 원래 경명인 <대방광불화엄경>으로 고쳤고,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한문은 한글과 함께 나란히 적었다.

동국역경원이 이번에 다시 펴낸 <대방광불화엄경>은 80권본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글 번역한 것. 당나라 시대 699년에 실차난다가 한역한 <화엄경>으로, 4만 5천개의 계승, 39품으로 짜여져 있다.

운허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강원을 거처하면서 대교과를 마쳤으며, 1936년 불전사 흥법강원에서 강사가 된 후 동학사 통도사 해인사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1980년 세수 89세로 불전사에서 입적했다.

김철우 기자



■ **대방광불화엄경 1-5권**  
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 각권 2만원

## 부다가야 12년, 참 많은 분들이 향기로운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 새벽처럼 깨어 있이라

(혜승스님 지음, 값12,000원)  
▶관공사 주지 혜승스님의 지비문음과 지혜가 곳곳에 들어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갈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이야기

### 보현행원풍강설

(혜남스님 지음, 값12,000원)  
▶오랫동안 동국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에서 후학들의 양성에 힘쓴 혜남스님의 저서인 법문으로 스님의 밝은 해안에서 우리나라의 보현보살 신중대의 이해를 통해 이 시대 불자 수행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남 잘되게 하기

(오심스님 지음, 값9,000원)  
▶법종사 주지 오심스님의 생활법문으로 삶의 희망과 올바른 생활을 향한 지혜를 안겨주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이타행태를 부르는 진리의 메시지

### 죽음이 없는 樂

(정관스님 지음, 값20,000원)  
▶수십 년 간 수행정진하며 대승교에 힘쓴 스님의 법문에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강조하며, 읽는 이로 하여금 바로 지금 발심하도록 마음과 부처라는 간절한 당부와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삶과 함께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가 그려진다.

### 발원문108선집

(덕진스님 엮음, 값6,000원)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수지 독송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지고 수행을 끈기있게 생활 속의 근심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 어린이 법요집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값3,000원)  
▶전통법과 법의 석승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읽기 쉽게 만든 법요집

### 묘법연화경

(석혜능 엮음, 값30,000원)  
▶정교한 필자집 끝에 다시 태어난 생세상과 아름다운 묘법연화경. 원역한 글에서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풍부한 내용에서 오는 커다란 감동과의 만남

### 묘법연화경 사경 중승분(계승)

1,2,3,4권 (혜승스님 엮음, 각5,500원)  
▶'묘법연화경 중승분(계승)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하여도 묘법연화경 진권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하는 것과 같은 공덕과 의의' 경전을 옮겨 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것 또한 수행 방법의 하나.

### 법화경의 세계-믿음으로 깨어나기

(하리기와이카라 지음 / 석혜능 옮김, 값10,000원)  
▶엄격한 수행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믿음에 의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는 법화경 가르침의 앞은 기쁨과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책.